

아시아의 표해록

7.10~9.27

모리아마 테이시로 '청국표류도'



'최부 표해록', '문순득 표류기', '15소년 표류기', '로빈슨 크루소'...
위에 열거한 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바다를 소재로 한 표해(漂海) 기록물이거나 소설 작품이다.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표류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형상화 한 것이다.
예로부터 바다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자 기공할 만한 자연의 힘을 상징했다. 순환과 공

생의 생태계 이면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드리워져 있다. 인류의 문명이 바다를 배경으로 꽃을 피웠거나, 세계열강들의 제국의 역사가 대양을 토대로 펼쳐진 건 그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바다를 소재로 한 기록물은 적잖이 생산됐다. 표류와 생환, 이국의 풍속과 문물을 담은 표해록(漂海錄)은 해양 견문록을 넘어 문화예술이 집약된 문화콘텐츠다. 낯선

바다를 향한 상상력이 문화가 되다

ACC·亞문화원, 세계수영대회 연계 '바다 건너 이웃' 테마전
15~19세기 亞 국가가 이어온 다양한 교류 초점... 8일 개막식

곳에 도착해 겪은 다양한 경험과 이후의 귀국 과정에는 바다에 대한 관점, 문화적 접근과 수용의 단면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표해록을 테마로 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기획 콘텐츠 '아시아의 표해록: 바다 건너 만난 이웃'전이 바로 그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오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라이브리리파크 기획전 3에서 테마전을 개최한다.
수영대회라는 세계스포츠 행사와 맞물려 물과 바다를 모티브로 풀어내는 이번 콘텐츠는 아시아문화원이 2016~2017년 진행한 '아시아 표류기 연구 및 스토리 심화 연구'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풍랑을 극복하고 문화 교류의 꽃을 피웠는지 지난한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아시아의 표해록'에서는 아시아의 대표 표해록을 소개한다. 15~19세기는 선박 제조술이 발달하고 무역과 문화 교류가 빈번했던 시기로, 지역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표해록이 생산됐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도를 기점으로 한 표해록이 가장 많은데 최초의 '표해록'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중화사상과 해금령 탓에 상대적으로 표해록이 적다. 이번 첫 선을 보이는 중국 표해록의 백미 '해남잡지'는 19세기 대만 팽호에서 베트남까지의 표류기를 아우른다.
섬나라인 일본의 표해록은 수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 일본인이 조선과 중국 본토에 표착한 경우가 많고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평양과 아메리카까지 간 경우도 있다.
2부 '풍랑을 헤쳐 아시아를 만나다'에서는 표해록을 분석해 아시아인의 문화 교류 양상을

소개한다. 표류민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송환제도의 정착, 표해민의 귀향 시 목도했던 이국의 삶과 문화가 펼쳐진다. 특히 표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해류와 계절풍, 주요 표착지, 송환경로 등이 소개된다. 송대(宋)부터 제도화된 동아시아표류인 송환체제와 구휼, 한·중·일 삼국 공조 체제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표해(漂海)'라는 소재는 돌발적인 상황과 맞물려 드라마틱한 요소가 적지 않다. '표류의 발생-위기-표착-이국생활-송환여정-귀국'이라는 서사구조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제3부 '콘텐츠로 만나는 표해'는 해양문학, 기행문학 등 다양한 콘텐츠 관점에서 표류를 조명한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희, 노, 애, 락'이라는 네 글자로 표해를 풀어낸다. 익히 알려진 문학 작품 '로빈슨 크루소', '15소년 표류기'는 물론 문순득의 아시아 표류 경험을 소재로 한 극단 갯돌의 '홍어장수 문순득 표류기' 영상, 영화 '캐스트 어웨이: 톰헨크스 주연' 등의 창작적 작품이 소개된다. 한편 개막식은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라이브리리파크 기획전 3에서 개최된다. 문의 062-601-4430. /박성천 기자 skypark@

서암전통문화대상에 거문고 유소희 명인



제 9회 서암전통문화대상(전통기악 부문) 수상자로 거문고 연주자 유소희(사진) 명인이 선정됐다. 상금 3000만원.
공작기계 전문기업 화천그룹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은 3일 올해 수상자로 유 명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제11대 국립국악원장을 역임한 한명희 씨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6월 한 달 동안 심사를 진행해 왔다.
전남대 국악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유 명인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단원으로 입단, 2002년부터 거문고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이수자다. 또 1997년 국악실내악단 '황토제'를 창단, 전통음악 연주와 창작활동을 통해 국악 대중화에 기여했으며 박녹주 국악대제전 대통령상,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12회의 개인 독주회와 꾸준한 협연을 무대를 가졌으며 전남대 국악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에서 실기지도를 하는 등 후학양성과 한국 전통음악 해외에 알리는 역할도 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리며 이날 행사에서는 유 명인의 연주도 펼쳐진다.
서암문화재단은 고(故) 권승관 명예회장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생전의 깊은 관심을 계승하고 전승발전시켜 예향에 걸맞은 전통문화예술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화천그룹이 지난 2010년 설립했다. 재단은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예술 전공 고등학생 장학금지원 등 전통문화 인재양성,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전통문화학술 연구를 펼치고 있다.
문의 062-950-152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담빛예술창고에서 즐거운 '예술산책' 14일까지 50명 200점 전시... 10만~50만원대 판매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부담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전남 지역 젊은 미술가들이 만든 직거래 미술장터 '예술산책: 길에서 만난 예술'전이 오는 14일까지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린다. 작가미술장터에서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배수민 작 'Each'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와 대학 졸업 후 이적 막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신진작가 50명의 작품 200점이 전시된다.
'작가미술장터'는 기존 미술 시장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적었던 작가들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으로 작품 소장이 어려웠던 미술 애호가들이 편하게 작품을 즐기고 소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직거래 장터다.
광주·전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업 갤러리 활동이 미흡해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

일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장터에서는 작품 전시와 판매 이외에도 큐레이터 등 다양한 미술 관계자를 초대해 젊은 작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판매 작품 가격대는 10만원부터 50만원 사이로 책정해 미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작품 구매가 어려웠던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는 인간, 자연, 힐링이라는 3개의 색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강동호·강일호·강지수·고마음·고정훈·김명우·김미지·김성결·김승택

박성환·박인선·서영실 등 50여명의 작가들이 서양화, 한국화, 조각, 판화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중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6일(오후 4시) 전시장과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오프닝 행사에서는 퓨전 국악그룹 루트머지의 공연이 열리며 참여작가 경매(5점)행사도 진행된다.
또 행사 기간중 주말에는 도슨트가 참여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반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열린다. 9일(오전 11시~오후 1시) 담빛예술창고에서는 장현우(담빛예술창고 관장), 양초롱(해동문화예술촌 감독), 김성아(담양문화재단 문화정책담당자) 씨가 '미술시장 흐름과 전망 그리고 지역미술계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한우중 광주신세계갤러리 큐레이터는 19일(오후 4시) 복합문화공간 김넷에서 '중국 청년작가들과 미술시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또 전시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구매자가 뽑은 인기작가 및 작품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인성 전시감독은 "인간이 자연을 만나 치유되는 과정을 일상에 지친 현대인이 산책을 하듯 만난 예술을 통해 느끼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문의 061-383-8240. /김미은 기자 mekim@



성혜림 작 '소통'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후원 특별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